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손 경 화*(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한 유 미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1. 서론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Gottman et al., 1996) 자녀의 정서 특히,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초점을 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Fabes et al.(2001)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는 회피하고 싶은 것이므로 어머니들은 처벌과 같은 부정적 통제전략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가 부정적 정서에 지지적 반응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정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일반적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양방적 관계라는 입장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기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만 3-6세 유아의 어머니 145명이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은 Eisenberg et al.(1990)의 CCNES를 김희정(1994)이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기질은 천희영(1993)이 개발한 어머니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첫째, 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유형보다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이나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등 긍정적 반응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일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을, 취업모일수록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을, 수입이 많을수록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과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가족보다 핵가족 어머니가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최소화 반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반응유형의 일부 차원들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기질의 적응성은 어머니의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및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규칙성은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반응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과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유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 태도 및 정서적 반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